朝鮮日報
第二夕刊 十八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趙膏藥

獨伊의對佛要求
佛抗戰力剝奪이目的
獨總統과伊首相會談結果

【紐育十七日發同盟】A・P伯林電에 依하면 獨逸官邊側에서는 十八日 히틀러總統과 뭇솔리니首相과 會見한結果、獨伊兩國은 佛에對하여 完全降伏을 要求할것으로 보이는데 獨伊兩巨頭는 將來佛에 關하여 政治的 軍事的 社會的 各方面에 亘한 包括的 計畫을 樹立하여 佛의 將來에잇서서의 對獨抗戰能力을 不可能케할것으로 보인다 (寫眞은 히總統과 무首相)

伊首相出發

【羅馬十七日發同盟】히틀러總統과 歷史的會見에 臨할 뭇솔리니首相은 十七日 急遽 前線으로부터 飛來한 차노外相을 帶同 午後八時半 羅馬出發 會見地 某所로 向하엿다 또 國軍總司令官 바도리오元帥는 途中에서 隨行할터이다

獨回答未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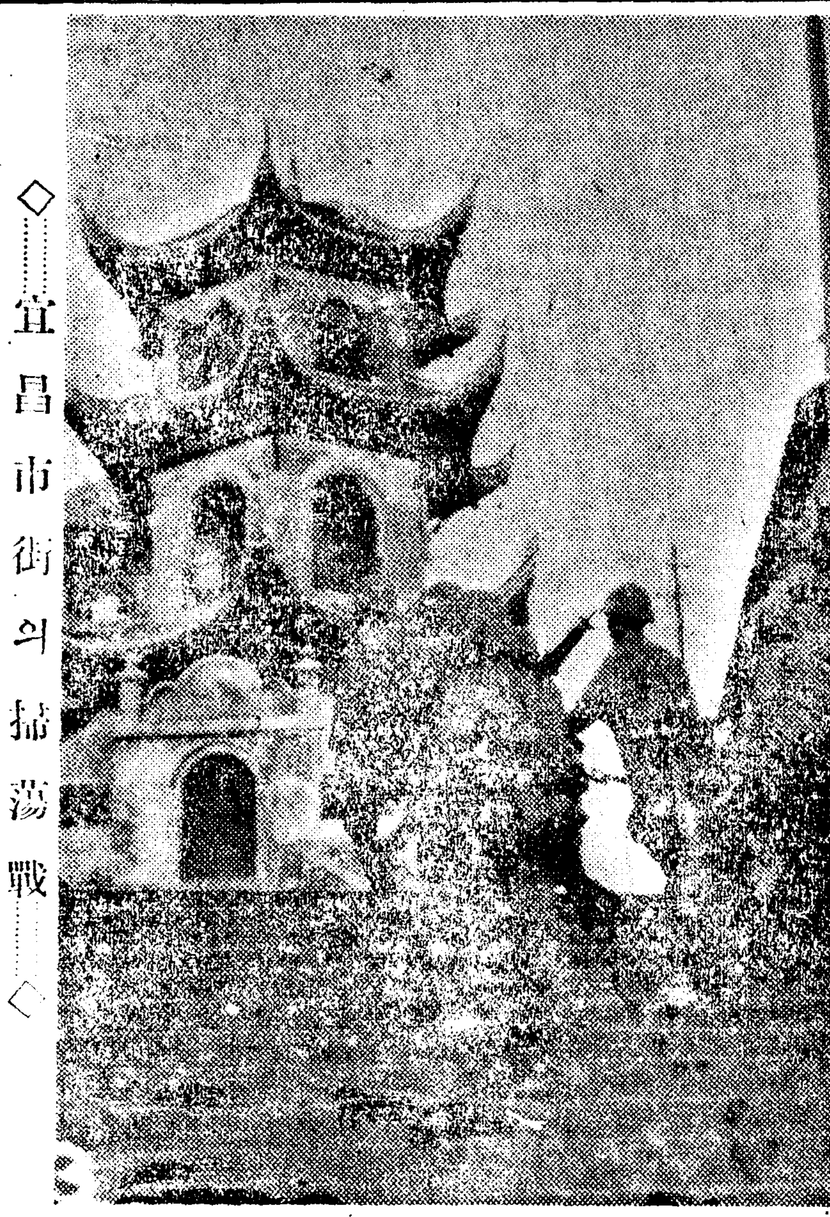
【보르도十七日發同盟】페탕首相의 休戰要請에 對하여 히總統이 如何한 條件을 提示할지 目下 重大關心事가 되어잇는데 佛國防省代辯者는 十七日夜 페탕首相의 休戰要請에 對한獨政府의 正式回答은 아직 接受치못하엿는데 不遠到着하리라고 期待하고잇다고 말하엿다

佛軍降服을 獨公式으론不確認

【伯林十七日發同盟】獨逸官邊은 十七日午後六時 佛軍의 降服에 對하여 페탕佛首相이 라디오에서 라디오를 通하여 佛軍은 戰鬪를放棄하고 獨軍當局과 交涉에들어갓다고 聲明한것은 알고잇스나 이를公式으로 確認할수는 업다고 言明하엿다

駐蘇支那大使 寂寞한莫府到着光景

莫斯科로부터의 報道에依하면 新任駐蘇支那大使 邵力子는 六月七日 莫斯科에到着하엿는데驛頭에는 外務人民委員部 條約局長及 支那、使館員이 出迎하엿스나 從前에比하여 新大使의莫斯科到着으로서는 아주 쓸쓸한것이엇다



◇……宜昌市街의掃蕩戰……◇

事變關係品天覽
昨日大本營陸軍部에行幸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十七日陸軍大臣以下로부터 畏幸의 御說明申上하여 三宅坂의大本營陸軍部에 行幸하시사 天覽品陳列室에、寫眞、多數 事變關係의 兵器其他를 天覽하옵섯는데 特히今年一月 賓陽作戰에서 小中村部隊가 士囊代身에 使用한 乾麵麭과 昨年十二月 下旬 支那軍의 冬期攻勢에 際하여 江西省에서 兵站線確保에 當하고엿든 金澤部隊의 兵站自動車의 裏側아래 窓戶 玉步를 머므시사 御覽特히 기모셧다고 承聞되는바 關係職員一同은 恐懼感激하엿다 天覽의 光榮에 浴한 小中村部隊의 土囊代用 乾麵麭은幅一尺餘、長、尺五、六寸의 麵은 부러刃板에 부처서 今年一月 小中村部隊가 賓陽作戰의 入城附近의 戰鬪에서 防禦陣地 構築에當하여 胸牆用의 土囊代用으로서 乾麵麭의 空箱을 破壞하여 使用한것으로 六十三個의 小銃彈痕과 六百十九個所의 手榴彈片痕은 부러刃板을 蜂巢와가치뚤어 當時의戰鬪가 如何히 激烈하엿던가를 말하고잇다 金澤部隊의 兵站自動車는 昨年十二月 支那軍의 冬期攻勢에際하여 連日敵과 交戰하면서 輸送의 任을마치고는데 十二月二十二日江西省의 安義에서 同省永收縣의 張公渡로向하여 患者를 後送하는데 使用한片瀨上等兵 操縱의 트럭으로 偶然 同日午前十時五十分頃 어름에 永收縣大源橋 附近에 왓슬때 山中에서約八百의 敵이、出現하여 四方의 旣設陣地에 據하여 頑强히 抵抗、重機關銃과 迫擊砲의 盲射를 퍼부어왓다 金澤部隊의 將兵들은 트럭의 患者를 돌보면서 地形의 不利와 寡兵에도不拘하고 善戰奮鬪、總攻擊을繼續하여同日午後七時頃 突擊으로써 敵의主陣地를奪取、敵은死體八十을遺棄하고逃走、六名을捕虜로하엿는데 我方도 下士官一名戰死、將校兵各一名이 負傷하엿다 이戰鬪中 片瀨上等兵操縱의트럭은 敵의機銃、小銃의猛射를바더 三百數十發의彈丸을마저 機關部와 다이야、라지에터가破損하엿스나 多幸 車中의患者는 無事하여 戰鬪終了直時 修理하여 現在도 第一線에서 使用中이다

佛蘭西의降服은
東亞에도影響이甚大

【東京電話同盟】페탕佛首相은十七日 드디어 降服의聲明을 發하엿는데 이것이 今後 歐洲戰局과 外交에 미치는 影響은자못 큰만큼 我朝野는 今後 推移에 多大한 關心을 가지고잇는데 佛降服이 齎來할 戰況의 展望에 對하여는

一、獨軍의 英本土上陸作戰은成功率을增大한것

一、佛本國占領에依하여 獨側은 多大한經濟的餘裕를獲得함에이르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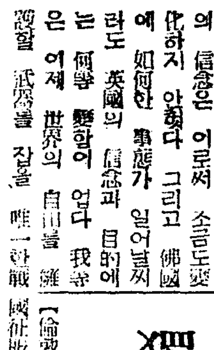
等이 列擧되는데 今回降服에依하여 英國이바든 物心兩方面의 衝擊은 非常히커서 特히米國이 參戰의 機會를노친것은 注目되며 蘇聯은 對獨警戒를 嚴重히하면서도 빨칸進出의 機會를엿보고 境遇에 따라서는 베살라비아에 進入하지안흐리라고는壯談치못할 情勢에잇서 이러한때 帝國으로서 가장注目하여야 될것은 佛海外植民地特히 佛領印度支那及 뉴칼레도니아의 問題로 佛領印度及 뉴칼레도니아에 對하여 英米兩國이 實力으로써그保護에 나아갈것은 充分한 可能性을 가지고잇다고 豫想된다 또東亞에서의 佛植民地에 對한 獨逸의 發言權도 無視할수업서 我南方政策에도 多大한關係가잇스므로 帝國政府로서는 歐洲戰爭不介入의 旣定方針을 堅持하면서도 그東洋에의 影響에對하여는 多大한 關心을가지고 注視하고잇다

佛의降服宣言에 보르도市民冷靜

【보르도十七日 井上同盟特派員發】悲運의 新首都보르도는新政府에對한 關心으로부터 激動을보내면서 二日에亘하여 佛의運命을決할閣議가 繼續되고 蘇聯前의 政權을 驗하고 新政府에 懸念과 期待를 가지고잇는데 市民은 歡迎의 뜻도업시 冷靜하게 이를 迎하는바이다 街路는 避難民으로 꽉차잇는데 會議의結果가 모든 것을 決하는 때라 降服宣言이되어도 人心은 冷靜하다 民衆은 自己의生活을생각하고잇다 事業은 即時開始되고 市民의生活은 徐徐히平常化되어간다 市內는白耳義、和蘭의 避難民을 他處로 소개하는데도 實로 人口過剩으로 모두 公共建築物은 집업는 사람들로 가득 차잇다 香港을 마룰려고 警察에가나 電報를 칠려고 郵便局에 가드라도 다가치 數時間을 기다리게된다 레스트랑에가서도 잘못하면 밥을먹을 機會를 노치고 만다 細谷海軍武官은 十七日朝 보르도에 到着하엿스나 잇슬房이업서 自動車속에넘어잇다 澤田陸軍武官은 아직到着하지아니하엿다 澤田大使는 十六日午後겨우 보르도의新外相과 會見하엿스나 政府와의連絡을 거의取할수업는 悲慘한運命으로 斷末魔의新首都의 사람들은 佛植有의끈직끈직한 精神으로 一步一步 混亂속에서 平常的生活을 되푸리하고잇다

王克敏氏離京

【東京電話同盟】前華北政務委員長王克敏氏는 十七日午後九時四十分 東京驛發歸路에 就하엿는데 離京에 앞서 大要左와 如히 人事하엿다 國事多端한 이때 健康을 爲하여 華北政務委員長의現職을 辭任하기로決定한것은 遺憾이다 그러나 今後는 國事顧問으로서 各界의 期待에副하도록 日支提携促進을 爲하여 建設的覺悟를가지고잇다 歸國에際하여 今日宮中에參內 天顔을拜하는 光榮을어더 感激하여 마지안는다 在京中朝野의 御歡待에 對하여 感謝하고 아울러 敬意를 表하는바이다



今年度物動計畫
企劃院中心으로實施準備
計畫貿易도强行豫定

【東京電話同盟】國防力의擴充과 戰時國民生活을 確保하기 爲한今年度物動計畫은 이미 그大綱이決定되어 어제 本格的實施段階에 들어갓는데 政府는 物動計畫의 實施를 期하기爲하여 戰時統制를 一層强化하려고 今後總動員法의 各統制法規及 輸出入臨時措置法、臨時資金調整法의 全面的活用에 依하여 目下企劃院中心으로 着着準備中이다 [illegible] 臨時船舶管理法의 全面的發動에 依한 船舶의 國家統制의 斷行 [illegible]

松野鐵相留任을 米內首相에通告

【東京電話同盟】久原總裁의 參議就任에 따라 各方面으로부터 注目받고잇던 松野鐵相의 進退는 黨內顧問其他를 網羅한 結果 久原總裁의 行動과 關係의 進退는 別個問題라는 結論에 到達하여 從來대로 留任하기로 決定하고 此旨를 十八日米內首相及 久原總裁에 通告하엿다 그리고 同派政務官 五名도 全部留任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松野鐵相 以下 松山海軍、松岡拓務、各政務次官 星島司法、松本農林、櫻尾遞信 各參與官은 [illegible]

樞相西下

【東京電話同盟】近衛文麿公은 十九日 伊勢神宮에서 擧行되는 紀元二千六百年奉祝式典에 勅使로서 列席하려고 十八日午前九時 東京驛發 「쯔바메」로 西下하엿다

獨逸國民의沈着

【伯林十七日發同盟】어제 獨民은 六月이제 第一기뻐하는지 佛蘭降服의今日 午後五時 라디오의特別뉴스가 佛軍의 降服을傳할最後에 「이歷史的瞬間을當한 全體國民 我等의子孫은 衷心으로부터 感謝할것이다」라고 放送을 마치고 三分間의 默禱를 올렷는데 모든感激의 눈물을 띄우고 잇섯다 그러나 興奮는그것뿐으로 提灯行列도업고 萬歲로市街를 橫行하지아니햇다 이것은一種深淵에 臨한기쁨이다 그들은 前途에 英國民의 必至의抵抗이잇슬것을알고 잇다

獨國民은 어제 民族最後의 勝利를 엇기까지 마음을 느추지안코 一步一步 堅實히 나아가자고 決心하고잇다 國民全體가 切實히 戰爭目的을自覺하고잇는것이 今番의 壓倒的戰捷을 齎來한것이다 「다음은倫敦이다」이 標語下에 國

八面鋒

◇ 佛國政府는 降服決定、一國滅亡의 始作일지。

◇ 生死關頭에 [illegible] 그러나 엇사리 降服할더이면 애당초 戰爭을 始作할꼬。

◇ 獨伊兩巨頭의 [illegible] 可觀、그러나 降服이라 [illegible] 이겟지。

◇ 伊는 參戰五日後에 兵不血刃하고 坐收漁人之功。

◇ 伊의 强硬要求를 佛이 능히 감수할것지 獨伊西三首腦의 會議가 可觀。

◇ 漢抗戰을 主張、그러나 大勢已決이라 어느두고 보아야지。

◇ 全印度에 反英熱이 膨湃、老帝國의 孤城落日運命은 悲字嘆。

◇ 米大西洋艦隊를編成、浮動砲臺인 急降下爆擊에는 束手無策인 艦隊이며 艦隊의 新編成은 그리큰 意味가 업는듯。

◇ 初任賃銀査定에 南低北高主義、勞動市場의 平衡을 確保하는데는 一良策。

無電不通

大阪과巴里間、十七日 [illegible]

英國所信엔無變更
취칠首相의演說內容

히 我等에 不利하다 余는이 가는 무서운 不運에 遭遇한 勇敢한 佛國民을 爲하여 一掬의 눈물을 禁치못한다 그러나 佛國이 반드시 再起할 날이 잇슬것을 밋는다 我等의 信念은 이로써 조금도變化하지 안는다 그리고 佛國에 如何한 事態가 일어날찌라도 英國의 信念과 目的에는 何等 變함이 업다 我等은 이제 世界의 自由를 擁護할 武器를 잡은 唯一한戰士가 되엇는데 我等은 어데까지 最高의 名譽를 위하여 最善을 다할것이다 我等은 英本土와 英帝國을 防禦하여 히틀러總統에對한 모든 사람들의 呪咀가 이 世界로부터 업서지기까지 敢然히 戰爭을 繼續할것이다 그리고 結局은 萬事가 잘 될것을 미더 疑心치 안는다 (寫眞은 취칠英首相)

獨軍英本土進擊
今月末或은來月中?

【倫敦十七日發同盟】獨逸은 佛國征服後 本格的으로 英本國攻擊을 開始할것으로 豫想되는데 [illegible] 아마今月或은 來月中에 英本土에 進入을 企圖할것이라고 言明하여 注目을끌엇다

佛蘭西大使館 北京으로移轉乎

【上海十八日發同盟】歐洲動亂의 急旋回에따라 駐支英佛大使의動向은 매우注目되는바 카英大使는 重慶으로부터 香港經由十七日上海에 到着、近近北戴河에避暑갈터이며 目下滯滬中의 코슴大使도 카大使의뒤를따라 北支方面로 向할터이라한다 그리고現在上海佛蘭西總領事館內에잇는 佛國大使館은 近近北京으로 移轉한다고傳하는바 佛當局은 官舍狹隘를理由로하고잇스나 歐洲政局의 動向에關聯한것이 아닌가 하고注目되고잇다

蘇발트三國併呑乎
羅國國境에도大軍을集結
芬蘭에도最後通牒?

【스톡홀름十七日發同盟】에스토니아、라트비아兩國에進駐를開始한蘇聯軍은 十七日早朝來 重要都市를 占領하고 잇다고傳하는데 蘇聯의 意圖는 빨트三國의現政權을 驗하고 芬蘭의쿠시넨政權에 類似한 傀儡政府를樹立하여 빨트三國을 完全히 蘇聯邦의 一部로하려는데잇다 그러므로 近近빨트三國에 在留하는外國人을 全部退去시킬것으로 보인다 蘇聯이빨트三國併合을急速히 實施할것은 獨의 西方의 勝利를 豫想하고 至今에 約束대로 取할것은 取하는 同時에 今後의事態에 應할 戰備를 完成할것으로 보이는데 蘇聯과芬蘭과의 關係도 또다시 險次危機에 瀕하고잇다

【伯林十七日發同盟】蘇聯의리투아니아進駐에依하여 빨트海沿岸方面의動向은 俄然 注目을 끌게되엇는데 蘇聯은 일찍부터 빨트三國併呑의機會를노리고 잇던바로 現在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三國으로向한機械化部隊의 兵力은 總數五十萬에 達한다고 傳하는一方 羅馬尼亞國境 베살라비아方面에도 約□十萬의大軍을 集結中인데 同方面에서의 危機도 切迫하고잇서 羅馬尼亞人記者들은 今後二十四時間을나오지안하 蘇聯의 베살라비아進駐가 잇지나안흘가고 觀測하고잇다 그리고蘇聯이빨트三國制覇의 餘威를몰아 更히芬蘭에 對하여도 最後通牒을 提示하엿다는說도잇다

蘇의빨티進出
獨、不得已承認乎

【伯林十七日發同盟】蘇聯이리투아니아에 進駐에 어어서 에스토니아、라트비아兩國에 對하여는 最後通牒을 提示하엿다는 報道에關하여 獨外務當局은 十七日午後 如히말하엿다 赤軍의 리투아니아進駐는 單只 從來의駐屯兵을 增派한것으로 생각되므로 至今 새삼스러이 이에對한 獨政府의態度를 表明하지안켓다 그리고 獨蘇間에 果然事前에 諒解가 잇섯는지 어떠지는 不明한데 蘇聯이獨逸이 東方을돌볼겨를이 업는 現在를노려 빨트三國及 芬蘭에對하여 行動을 일으킨것에 對하여는 結局이를 承認할수박게업는듯한데 이에 依하여 獨蘇關係도 惡化되리라고는생각되지안는다

重慶夜間爆擊

【○○基地十八日發同盟】中支艦隊報道部發表=海軍航空部隊第十三回 重慶爆擊(夜間)=福崎部隊長總指揮下의 三原、鈴木、駒町各隊는 十日夜 月光을 利用하여 重慶夜間爆擊을 敢行 午後九時半前後 白市驛及 廣陽壩飛行場에 對하여 巨彈을퍼붓고 白市驛上空에서 敵戰鬪機 四機와 約二十分間 空中戰을交하여 敵一機를 擊墜 地上數個所로부터 火焰이 일어나는것을보고 全機無事 歸還하엿다

蘇大連通商派遣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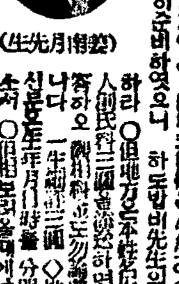
昨日蘇聯邦通商代表部 大連派遣員 데르코프氏는 過日東京着任의通商代表 타진氏에對하여 人事次 五日夜東京着、目下通商代表部에 滯在中이다

廣告

健康과長壽!
몸弱한분大歡迎

日常生活에 困難한분의大部分은 腸內의有害菌에서發生하는 弊害입니다 [illegible] 누구나아실수잇는 『乳酸菌製劑』 [illegible] 東京神田小川町三ノ十三 藥學化學研究所에 [illegible] (廣告)

觀相・創氏
滿天下人士에告하노라
新運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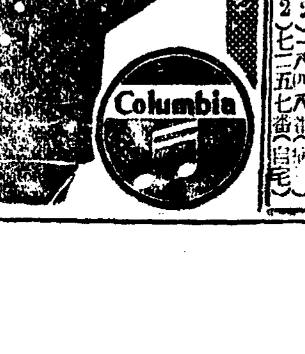
(姜南月先生)
京城府鍾路 姜南月觀相所

唯一神信仰

星錨印 ブラスバンド
精神武裝에 吹奏樂
五人組 三百四圓부터 (全國樂器店에有함)
日本青年館指定工場 ヤマグ樂器製作所 東京神田區淡路町
鳥致院支局 電話一四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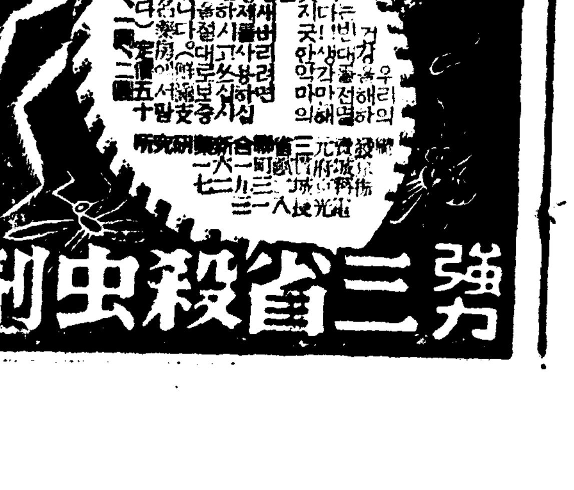
리질약 (征痢トニク)
泰永製藥研究所

OKEH 오케레코드
流行歌 青春離別
船夫의안해 李蘭影
떠도는마음 李蘭影
思鄕의船歌 金貞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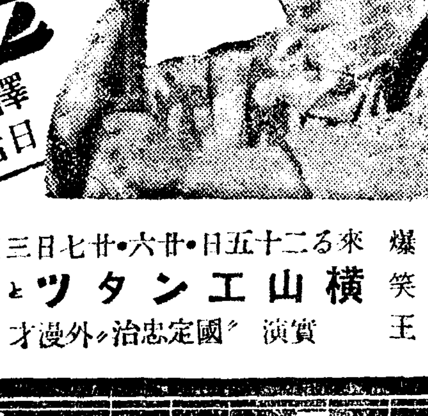
童謠 二千六百年
第一回頒布
神武天皇
日本武尊
千成瓢簞
才江戶手毬歌
(豫約募集中)
レコードは コロムビア 時代
Columbia

醫學博士 三浦長雄
內科 外科 小兒科
入院病室完備
三浦外科



古今東西新發明的 빈대천멸약
三省殺虫劑

19日まで
五○センチ一
吉本直營 寶塚
京城寶塚劇場
愈々入荷ノ獨逸トビス映畫
見よ絢爛たるシーズン・エンド 本年度のベストテン!
カール・リッター監督……作品の
人生の馬鹿
ルーフレッヒ・アドルフ・ヴォルフ ラウルペイマン
國光映畫株式會社提供 維納トビス・サッシャ特作
旧林タリアンラバスト 劇場封切
右門捕物帖
金色の鬼
嵐寛壽郎



日活京都新銳第一線 監督 澤村國太郞・阿部九五郎・田村扶紗子
怪奇!戰慄! 本據を衝く!
來る二十五日・廿六・廿七日三日間
爆笑王 橫山エンタツ と 其の一座 五十餘名

購買票制 不正事實續出에 當局, 撲滅對策講究

今日府廳首腦部配給調整懇談會開催

경성시내에 식량구매표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시민의 방면에서 대단히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 이와가튼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려면 부정한 이중배급(二重配給)을 …

淸溪町會서도 違反事實綻露

경성부에서는 부민의 반미수를 조사하여 구매표의 부정사용을 …

一萬圓慰藉料 請求訴訟提起

朝鮮內食糧은 充分 配給은 道知事가 負責

湯村農林局長談

學生勤勞作業 今夏도 繼續實施

비상시국하에 땀의봉사를 통하야 집단적 근로의 정신을 체득시키고 국가에 봉사하는 정신을 실천하고저 …

詔書御奉讀 拜聽式擧行

府尹郡守會議 明日開催

身病을 悲觀 老婆投江自殺

海底電信線 一部故障

五億圓을 突破

事變後每年一億圓씩 增加

簡易保險

(사진은 징병검사 때 광경)

"體格, 敎養은 及第點"

規定몰라 缺席하는 것은 遺憾

第二回京畿道志願兵銓衡檢査今日로 終了

檢査官 石谷大佐談

남의 돈훔처 홍청망청!

東署管內土幕村 豫防消毒施行

低"氣壓"과 總"監"

비는어떠케 오는가見聞하러 今日仁川氣象臺訪問

洋服專門竊盜 一黨을 捕盡

再鹽暴利商摘發

腸窒扶斯患者 三倍以上激增

勞働者初賃金基準

今日、朝鮮中央賃金委員會에서 最後的決定

(사진은 임금위원회광경)

代用燃料自動車

今年目標二千臺!

스포-츠

朝拳俱樂部 紅白戰擧行

新義州商業 劍道에 優勝 中等校劍道大會

大學、徽文優勝 學生水球大會

全朝鮮庭球 平壤洪、吳組出場

全朝鮮專門學校 中等學校蹴球大會

門鐵野球軍招聘戰 八對一로平實軍敗

西朝鮮野球리그 平鐵軍이勝利

汎太平洋卓球 明年에는米國

今日의 放送

神經衰弱、頭痛、健腦、에는 ロイマチス關節炎、神經痛에는 原因療法을하야 病뿌리를업새야 납니다

京城府鐘路六丁目二六七番地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二十才の男子に 無代進呈

朝鮮總督府看守募集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製造卸商 漁具 投網 網と釣具 京城 竹添町 網屋

時計 完全修理 普信堂時計舖 京城鍾路二丁目

强性强精藥 國境大藥房

カッローール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百補丸會社 一劑十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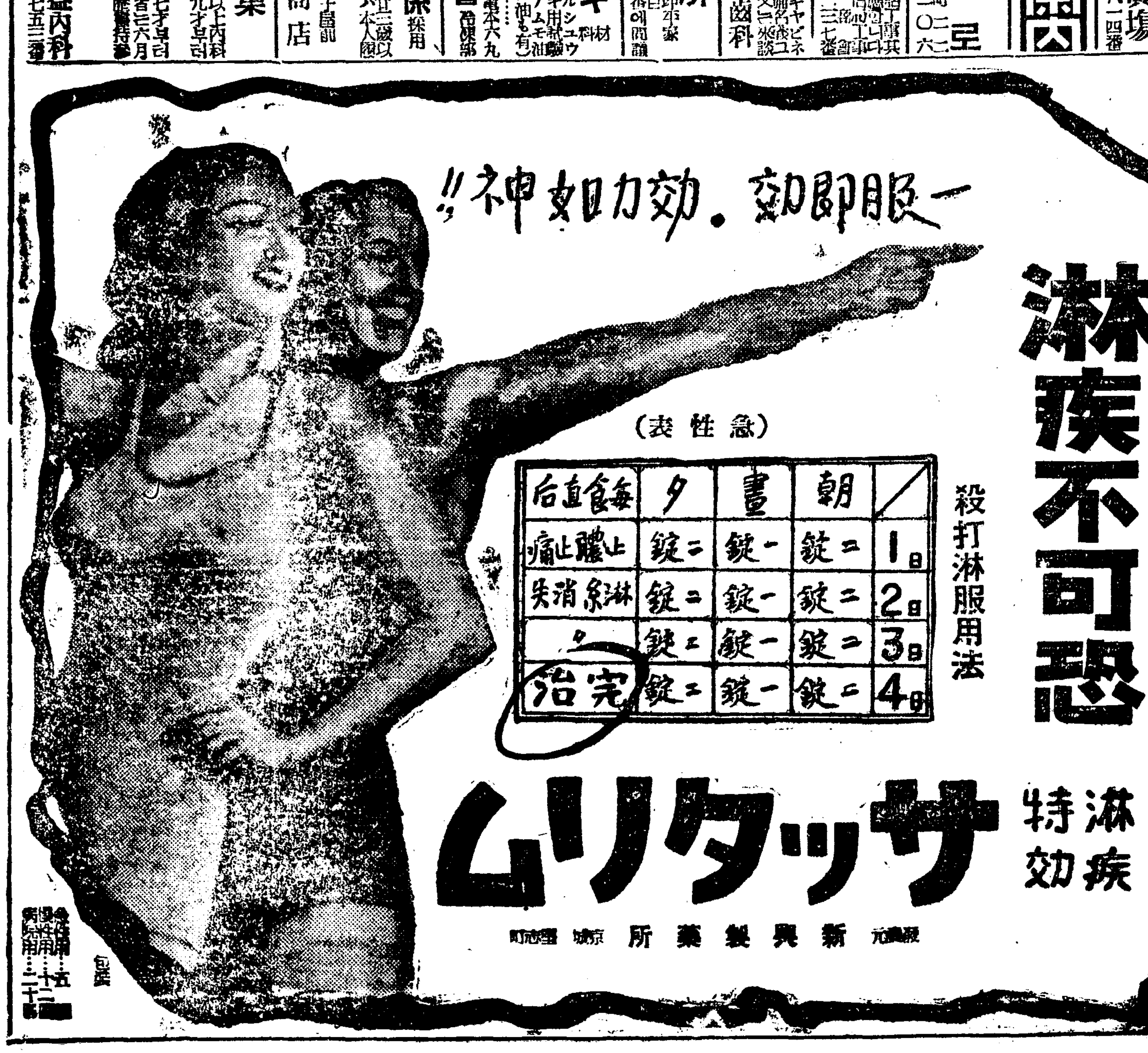
和信の寫眞撮影案内!! 長安寫眞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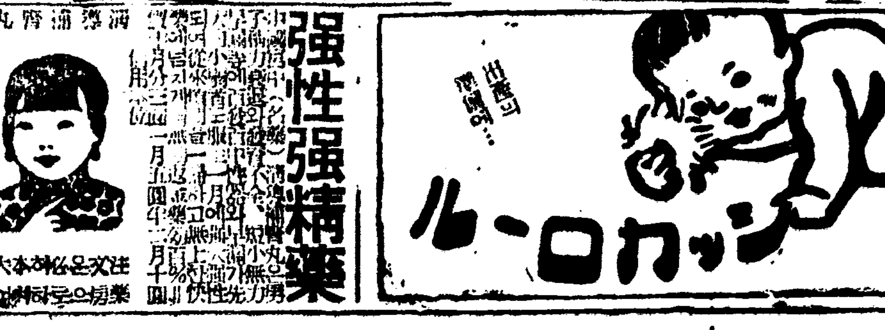
業務時間改正 開 午前九時 閉 午後八時

朝報案內 三洋舍 電話 齒科 楊平齒科 讓渡 貸事務所 アイスケーキ 大同商會 織物小賣外賣係採用 大勝商店 看護婦募集 金東益內科

安住かとり線香 有効御證明 カトール

淋疾不可恐 一服卽效。效力如神!! 殺打淋服用法 淋疾特效 サッタリム 新興製藥所





明日에 企待하는 人間이다
—偉=大=한=行=動=人 【下】
—詩의 피가 흐르는—

詩人 金珖燮

나는 偉大도 行動을 要求하고 또 熱望한다。그러나 이 行動이란 人類的乃至文化的意識을 前提로하지안흐면 안될것은 勿論이다。

原理 個人에게서 行動되는 行動이 되고말것이다。個人行動이나 社會의 行動이나 또는 어떤 團體的 意識의 行動이나 이것은 다만찬가지다。가장 커다란 例를들라면 第一次世界大戰의 結果『베르사이유』媾和條約은 그 國際的行動意識이 獨逸로하여금 오늘의 巴里陷落에 이르게한것이 오늘의 世界는 不斷히 行動하되 그行動自體에 人類를 幸福하게하려는 普遍的原理가 發見되지못하고잇다。그러므로 世紀는 多分히 破滅的危期에 다처서 自殺的心理에 치우처고잇는것이다。어느나라를 보든지 거진다 그러하다。

이것은 行動意識의中心이 自己를 前擧하는以外에 全體的이란 하는 習性이 업기때문이다。그러므로 나는

世界 또는 思考力이 잇서서 그것이 우리에게와서 다시우리의 特殊性을 떠나서 우리自身을 救濟할 指導精神이되어 그精神으로써 行動意識을삼는 그러한 行動人이어야 明日의時代에 期待할 行動人이아닐가한다。그러치안흔 一面에偏重된 行動이란 그當面에 時間을 넘어가면 發展되리라는 人間意識의 歷史에서 곳意味를 일허버리고 價値에 問題에서 떠러저버리게된다。實로 世界의 만흔英雄들은 너무도當面의倫理에만 興奮하여 行動으로써 勝利하엿스되 그大部分은 文化의敵으로 못나고말엇다。그것은 過去의英雄들은 大槪 敎養되지안흔 野生的 部分을 武力化하여된 英雄인때문이다。참으로 우리는 偉大한英雄的行動人을 熱望하나 일직 詩聖『단테』와『쉑스피어』를 그英雄崇拜論속에 올려세운 文明批評家『카-라일』이 아니엿도면 우리는 아직도

英雄 에對한 偶像崇拜를 버리지 안햇슬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偉大한英雄的行動을 熱望하는것은『단테』나『쉑스피어』를 반드시 英雄으로 認定하는 거기에서 出發하는것은 아니고 다만우리의 精神과 그文化的有機體를 意識하는데잇서서 行動의 性格은 文化意識의 一側面을 맛음하는것뿐이다。이러한意味의 行動 또는 그 行動의主體에는 비록宇宙의意志가 介在하더라도 거기에 崇高한情熱을 가질수잇스니 이러한것을 가르처서 詩의피가 흐른다고할수잇슬것이다。이피로말미암아 비로소 偉大한 義務가 敢行될것이며 따라서 自意識의覺醒에서 人類意識을 喚起할수잇슬것이다。이것이 行動으로 나타날때 비록 自己의個體가 破滅되는 不幸한境遇일지라도 그는 人間을 破滅하는 모든것에 抗議하고 反逆할것이다。이것이 眞實한行動人에게주는 理念이어야할것이며

理念 이 또한 人間이 人間以上의超人的 價値를 決定할것이다。

그러치안흔 只今世界는 至極한 混沌에빠지고 相對者의 破滅이 自己의破滅인것을 알지못하고잇다。그러나 破滅지키고보면 自己도 破滅되는것이 알려지는 結果가 同時에 올것이다。그러면 이러케 破滅된 世界는 다시 조흔世界가되리라는 意欲을 한번은 언제나 가질것이다。世界의 大意志가 어데로가고 어데로가든지라도 그것은 엇지할것은아니다。이大意志를 살릴者는 歷史의全時代를 意識우에 體驗하고 거기에서 어든 絕對한 觀念을 現實에 옮겨노흘 行動人일것이니 그는 恐怖가오더라도 느끼지못하는젓할것이요 禮讚이오더라도 듯지못하는젓하며 오직信念에만 살것이다。이信念은 生死의 區別로서 行動을制限치는 안흘것이다。여기에서는 오직 行動을 爲하여 生死는 問題로 [illegible]

最高 가치의 意味와 使命을 가진것이다。이러한意味의 偉大한 行動者ㅣ 다음世界는 거기에 屬할것이다。오직 그는 人類의 意識에서 思考하여야할것이요 그는 그思考를 沈默할지라도 言語以上의 表現으로 行動化하여야할것이다。그러라면 그血管속에 詩의피가 흘러야 언제나 正義者가 될것이다。이피가 업스면 英雄이 지나간 자리는 荒野가 되는지 焦土가 되고만다。惡魔의허울밖에 어 行動을 하고 行動뒤에 地獄이 잇서서는 人類는 英雄아페 永遠히 戰慄하여야할것이다。

外來語表記法抄
朝鮮語學會制案 【5】

(2) 그 아래에 母音이 어울리지 아니한것은 홀소리「ㅡ」를 부치어 적음을 原則으로 하고, 다만 ʃ는 「ㅣ」를 부치고, 끗소리로서의 ʃ만은 「ㅟ」를 부치어 적음。例:

shrine(英ʃrain) 슈라인(神廟)
Einstein(獨ainʃtain) 아인슈타인(人名)
Versailles(佛vɛrsɑ:j) 베르사유(地名)
Marseille(佛marsɛ:j) 마르세유(地名)
gagnepain(佛gaɲpɛ̃) 가뉴팽(生業道具)
montagne(佛mɔ̃taɲ) 몽타뉴(山)
Licht(獨liçt) 리히트(光)
Danzig(獨dantsiç) 단치히(地名)
dish(英diʃ) 디쉬(皿)
English(英iŋgliʃ) 잉글리쉬(英語)

(二) ʒ dʒ tʃ 따위

(1) 그 아래에 母音이 어울린것은 第一章의 對照表대로 적되, tʃ 에 어울린 i I 만은 「ㅟ」로 적음。例:

jarre(佛ʒa:r) 자르(水甕)
vision(英viʒən) 비전(觀察)
jet(佛ʒɛ) 제(投射)
pigeon(佛piʒɔ̃) 피종(鳩)
bourgeois(佛burʒwa) 부르좌(有産者)
jeunesse(佛ʒœnɛs) 죄네스(幼年)
jour(佛ʒu:r) 주르(日)
jouet(佛ʒwɛ) 주에(玩具)
jus(佛ʒy) 쥐(汁)
Java(英dʒɑ:və) 자바(爪哇)
jazz(英dʒæz) 재즈(舞踏名)
jerk(英dʒə:k) 저크(急動作)
gesture(英dʒéstʃə) 제스처(動作表情)
George(英dʒɔ:dʒ) 조지(人名)
jurist(英dʒúərist) 주어리스트(法學者)
chance(英tʃɑ:ns) 챈스(機會)
chapel(英tʃǽpəl) 채펄(禮拜堂)
church(英tʃə:tʃ) 처취(敎會)
chair(英tʃɛə) 체어(椅子)
chalk(英tʃɔ:k) 초크(白墨)
chewinggum(英tʃú:iŋgʌm) 추잉검(噛藥菓子)
chicken(英tʃíkin) 취킨(幼鷄)

(2) 그 아래에 母音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끗소리로 된것은 ʒ dʒ 에는 홀소리「ㅣ」를, tʃ 에는 「ㅟ」를 각각 부치어 적음。例:

charge(佛ʃarʒ) 샤르즈(負擔)
sabotage(佛sabɔta:ʒ) 사보타즈(怠業)
college(英kɔlidʒ) 칼리지(大學)
Cambridge(英kéimbridʒ) 케임브리지(地名)
bench(英bentʃ) 벤취(長椅子)
Deutsch(獨dɔytʃ) 도위취(獨逸語)

第二節 母音에 關한것

第六項 二重母音은 두 홀소리로, 三重母音은 세 홀소리로 적되, 「ou」만은 한 홀소리 「ㅗ」로 적고 長音을 길게 읽는다。例:

home(英houm) 홈(本國)
bonus(英bóunəs) 보너스(賞與金)
Mexico(英méksikou) 멕시코(墨西哥)

第七項 圓脣化한 母音(w따위에 어울린 母音)은 wa 와 wə 는 「ㅘ」로 적되, wo 나 wou 는 「ㅝ」로, wu 는 「ㅜ」로 적는다。例:

quotation(英kwoutéiʃən) 쿼테이션(引用)
wood(英wud) 우드(木)
Washington(英wɔ́ʃiŋtən) 워싱턴(華盛頓)

第八項 鼻音化한 母音(ɑ̃ ɛ̃ ɔ̃ œ̃ 따위)은 끗소리에서나 子音 아래서 나를 勿論하고 홀소리에 「ㅇ」받침을 부치어 적는다。例:

(1) 끗소리
maman(佛mamɑ̃) 마망(母)
main(佛mɛ̃) 맹(手)
bonbon(佛bɔ̃bɔ̃) 봉봉(砂糖菓子)
un(佛œ̃) 엉(一)

(二) 子音의 앞
enfantement(佛ɑ̃fɑ̃tmɑ̃) 앙팡트망(分娩)
mainmise(佛mɛ̃mi:z) 맹미즈(差押)
monde(佛mɔ̃:d) 몽드(世界)
emprunter(佛ɑ̃prœ̃te) 앙프룅테(借入)

但 子音으로의 鼻音이 鼻音化한 母音節의 끗소리로 되어 잇는것은 그 鼻音化의 表示를 따로 하지 아니한다。例:

emmener(佛ɑ̃mne) 암네(導來)

第三節 特別한 경우에 關한것

第九項 原語의 綴字記號에 얼매일수 잇는 音은 그 綴字에 依하지 아니한것을 原則으로 取하고, 綴字記號가 두가지로 달리 적힌것은 그 아래 잇는것을 原則으로 取한다。例:

美術評論 —抽象과 抽象的— (上)
(十四回目由美術家協會展·朝鮮人出品評)

陳 瓛

★美術과 文化의 關係는 結局 藝術의 傳統性의 方向에 커다란 關聯과 意味를 가지고 잇을것이다。詩에 展開되여잇는 現實과 人間生活의 緊密性 잇지 못할것은 勿論이다。現在 作家의 누구나가 이와가튼 共通한 課題를 가지고 다시 이課題에 接近하려는 생각이 個個의 努力을 아끼지 안케 하는것이라고보다 이와가튼 努力은 單純히 作家의 態度를 決定할뿐만아니라 獨自의 方向을 開拓케 하는데 究極에서 생긴것이라고 보며 또 [illegible]

[illegible] 的인 契機에 接觸하는데서 생각하며 以上에 말한 接近을 目的하기에 數多한 行動을 보게한다。이러케 必然히 오는 影響이 個性的인것과 集團的인것을 連結케 하고 同時에 一種의 傾向으로까지 發展케 하는것을 볼수잇다。이러한 傾向에서 數多한 作家의 生氣가 되고 集團的인 性格의 것을 助長하기에 [illegible] 自由美術家協會는 [illegible] 端에서 생긴것이라고 보며 또 [illegible]

생각이 업는바는 아니나 여기에 出品하고잇는 [illegible] 作家가 [illegible] 抽象 (아부스트렉)과 抽象的 (압스트락트) 이것을 생각아니할수업다。이外에「리알리제」와「리알리제시옹」의 [illegible] 本이 抽象인데서 그結果가 抽象을 [illegible]하는것이엇고 또 하나는 根本이 抽象的인데서 그 [illegible]은 自然이엇고 이를 抽象化 [illegible]

★金煥基氏(會友)「窓」外一點。이분의 作品은 以上에 말한 抽象的인데서 [illegible] 어데까지 [illegible] 現代人의 [illegible] 보이고잇다。[illegible]

窓 —金煥基—

修養 合理的心身鍛鍊法 (六)

陸軍中將 秦眞次

六、敎練과스포-츠

『스포-츠』를하는 사람의 目的도 [illegible] 甲乙丙丁의 各種이 잇다고 생각한다。近來 씨름가튼 一人對敵의 競技가 發達하고 野球『럭비』가튼 團體競技가 盛해진것은 社會에 잇서서의 團體生活의 一反影이라고 볼박게업다。그래서 이러한 競技에 依하여 個人으로서의 心身鍛鍊도 되고 또 團體的인 心性 即注意力、機敏性等의 個人的德目은 勿論、責任觀念、犧牲的精神、共同一致等의 團體生活에 必要한 德目을 養成할수가잇다。이點에 잇서서『스포-츠』는 前述한 [illegible] 點도잇스나 이것을 敎練에 比較하면 [illegible] 차리리 娛樂에 기우러서 興味本位로서 修養는 副産物인 感이잇다。따라서 前述한 意味의『마지메』란 點에잇서서 敎練에 밋지못할뿐아니라 團體訓練으로서는 겨우 十名內外의 共同一致로서 敎練처럼 千名이라도 萬名이라도 모두 一心同體가 되게하는 힘이업다。이點에 잇서서『스포-츠』는 敎練에 到底히 밋지못한다。그런데 往往 自己들은『스포-츠』로 團體訓練을 하고잇스니까 敎練에 依해서 따로 團體訓練을 밧지안하도 조타하는것을 들으나 이것은 큰잘못이다。右와가튼 團體訓練은 現代의 靑年心理에 投合한것을 認定하고 敎練指導者가 그長點을 取하여 이것을 敎練에 利用하려고 하는것은 勿論 一案이기도 하나 이때문에『마지메』한 敎練을 어느름에 娛樂化시키는일이 업도록 그程度는 잘생각지안흐면 안될것이다。

七、敎練과德目

學校敎練及靑訓의 目的은 心身의 鍛鍊이어서 直接戰爭을 爲한것은 아니나 그러므로 敎練의 어느科目을 實施하는경우에도 道德의 養成이라는것을 이저서는 안된다。그런데 從來 學校敎練及靑訓에서 이德目이라는것이 等閑히되여서 어느사이에 科目本位의 軍隊式敎練이 되기쉽다。敎官自身은 自己의 머리속에서만은 德目에 [illegible] 가령 敎練의 計畫表에는 着眼할 主要道德이 記載되어잇스나 그實施狀況을 보면 軍隊에잇서서의 方式과 조금도 變한것이 업고 敎官의 敎練前後에잇서서의 諸注意 속에도 아모러케도 德目에 言及하지안코 다만 模樣의 善惡을 批評함에 끈치는것가튼것 또 生徒에 對한『現在 行하고잇는 科目은 어떤德目의 鍛鍊이라고 생각하고 實施했느냐』하고 試問해보아도 아모런 對答을 하지못하는者가 만코 또 間或잇서도 敎官의 머리속에 생각하는 德目과는 아주 符合하지안는다。이래서는 다만 號令에 依해서 身體를 움지기고잇슴에 不過한것으로 德目本位가 아니고 全혀 科目本位의 敎練이라고 할수박게업다。

右와가튼 科目本位의 敎練에서도 이것을『마지메』하게 하고만잇스면 不知不識間에 各種德目이 얼마간씩 養成되는것이다。特히 軍隊와가치 날마다 長時間에 걸처 이것을 行하고 또 內務에 잇서서도 敎練의 精神을 잇지안코 二六時中 하고잇스면 一二年中에는 相當한 效果를 거둘수잇다。그러나 學校나 靑訓가치 一週에 한번이나 두번 그것도 短時間에 [illegible] 모처럼 養成된 德目도 不規律한 日常生活때문에 곳 破壞될 념려가잇다。따라서 右와가튼 科目本位의 敎練으로는 效果가 적다。

이에 學校及靑訓에서는 모저 敎練으로 養成된 德目이 日常生活에 依하여 破壞되지 안흘뿐아니라 一層 나아가서 日常生活도『마지메』되게 하도록 德目의 印象을 한層 深刻하게 할 必要가잇다。그러는데는 敎練을 科目本位가 아니고 德目本位로 實施하는것이 特히 緊要하다。就中 學校敎練及靑訓의 敎練은 主目的으로 삼는 點에서 생각해도 그 敎練의 方式은 德目本位가 아니여서는 안될것은 當然하다고 말할박게업다。

八、德目本位의敎練

德目本位의 敎練이란 心身鍛鍊을 爲하여 德目養成의 目的으로써 行하는 敎練으로서 戰爭準備를 爲하여 戰爭에 必要한 科目을 가르키는 敎練이 아니라 마치 戰爭에 必要한 科目을 [illegible] 同一한 경우에도 그것은 어데까지든지 心身鍛鍊 德目養成의 目的인 것을 미리 알고 解하여 둘것이다。

德目本位의 敎練은 그 實施法에 아래와가튼 두가지 區別이잇다。

一、一德目養成을 爲하는 訓練 (各個敎練)
二、數德目의 同時養成을 爲한 訓練 (部隊敎練)

前者는 德目의 各個敎練이라고도 할것이고 後者는 德目의 部隊敎練이라고도 볼수가잇다。그래서 그實施의 要領은 左와갓다。

그一의 一德目養成의 경우는 普通 二個以上의 科目을 連續實施하여 그 交會法에 依하여 各科目中에 包含된 同一德目을 明瞭且深刻하게 印象시키려는것이다。(詳細는後述) 가령 左와가튼것이 그 一例다。

一、節度라는 一德目을 深刻하게 理解시키기 爲해서는『지금부터 節度를 부치는 練習을 한다』고 豫告하고 다음에 節度의 意義를 說明한後 다음의 諸科目을 連續하여 行한다。

1、『頭右』『直レ』…三回—(머리의 節度를 習得시킨다)
2、『擔ヘ銃』『立銃』…三回…(손의 節度를 習得시킨다)
3、『廻レ右』………三回—(발의 節度를 習得시킨다)
4、『一步前ヘ』又는『一步右ヘ』…三回…(몸의 節度를 習得시킨다)

二、機敏性이라는 一德目을 深刻하게 理解시키기 爲하여는『지금부터 機敏性을 養하는 練習을 한다』고 豫告하고 다음에 機敏性의 意義를 說明한後에 左의 諸科目을 連續하여 行한다。

1、番號…三回 (옆사람의 番號를 듯자마자 機敏하게 이것을 呼唱하게 한다)
2、整頓(二步前)…三回 (옆사람의 머리가 正面으로 되는것을 보자마자 機敏하게 이것을 나타낸다)
3、集合解散…三回 (機敏性을 全身各部에 나타낸다)

女•流•隨•筆 午后 (下)

張 德 祚

백화점은 그야말노 사람 도가니다。화장품부 진열대아페는 藥裝한『마네킹』이 열심으로 아모리케 宣傳을 하고잇다。

『조선부인이 쉬 늙는 까닭이 어디잇겟읍니까。그저 뭇한가지 크림하면 여지크림한가지 대체로 화장품을 선택할줄 모르는데 그원인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열변을 토하는『마네킹』여페는 흰『까운』을 입은 미용사가 탈지면에 그 상결고아지고 흑지안는다는 액체를 부처들고 둘러선 女人群가운데서 지마자가 잇슬때마다 얼풀을 디가준다。

『구구시도지 잠깐만늘다고가 시쇼 화장노해도 합니다』

미용사는 거짓말이 아니라는듯기 빙긋우스며 까제로 더픈 가루분을 툭툭털어 보인다。

『파마넨트』에 커다란『헤드렐』을 끼 女人이 선뜻 아프로나서다。동행인듯한 젊은 女人이 그 소매를 잡어다린다。

『가아、챙피해』

그러나『파마넨트』는 태연히

『챙피하긴 이것두 공건데 웨』

하며 검다란 얼굴을 넓죽이 도리밀고잇다。

나는 문득 언젠가 사랑에 실패한 여성이 그실던볼 위로하는 동무에게

『식사대접이 면떤 극장구경이면 그만좀는 공것이엇는데—』

하도란 말을 생각해 내엿다。

現代女性과 공것—이런 소리를 중얼거리며 칭칭대를 올라간다。

이층 포로부는 사람이 그리 만치안다。

산뜻하게 여름니상을 채린 人形마네킹을 모지두루맥이에 캡슨 시골서방님이 넉슬일코 처다본다。

『特價品 자투리』部도 가 본다。이걸 들어도 축 느러지고 저걸 만저봐도 흔드적거리고 모두『파이버』는 당자투리도 하나 [illegible] 리가 아니라 두지 다세치 이러케 일부러 [illegible] 허노흔것들이다。꼭 치마한감 적삼한가씩 [illegible] 틀이엇다。[illegible] 다구석에 [illegible] 몽독해보이는 가슴이 잇슴을 발견한다。

무심히 손에들고 보려니 밧작마른 여점원이 하나가 빼앗기라도 할도시 다아서며 [illegible]

『그건 파이버 [illegible] 라구 개인으룬 안판니요…』

하고 바라 소리를 지른다。

『이건 안드런데나 하는게 아니라 여학생들 [illegible] 으로 그저 한두자 사가는 게요』

그러자 내여페 섯든 마나님이 아까부터 해오던 抗議의 계속인듯

『아니 그리케 숭숭한 물건이면 은장반 금장반에바처 모서노치 웨 남의 눈아페 내노한』

하고 나츰하며 대든다。

『남의 눈아페 물건을 내노바엔 팔려구 내논거아녀。자가말처럼 여학생 裁縫용으루나 한두자 팔것가트면 웨 학교루 직접 배급을 헐거지 이러케내놔』

나는 쓸데업시『배급』이란 어휘가 이런경우에 적당한지 아한지 잠깐 생각해본다。

그러나 마나님은 무척분한모양이엇다。밧작마른 여점원의 역시 밧작 마른입술이 하야케 질리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다아 농간스조여 흥 돈가지구두 물건 못산다니 뉘말이게。참 장사아치끌악서니 메시꼬워 거리에두못 나와。그러치안소? 애기어머니!』

나는 갑자기 무어라고대답해야 조흘지를 알지못한다。

『제엔장 물건두구 안파는건 또 뭇슨심산지。그래두 헤애칼래 남자가 와서 딸래와 당장 해결할텐데』

여점원이 [illegible] 자리를 [illegible]한뒤에도 마나님은 좀체 [illegible] 그치려고하지안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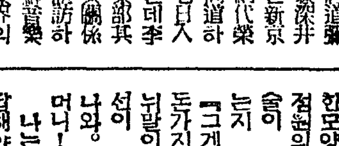
피곤하다。

저번 人形마네킹압헤는 아까 그 서방님이 엿시가든『포-즈』로 서잇다。

모지 두루맥이는 말할것 업고 젊은 두루맥이 아래 축 느러진 고이도 밀시운 면일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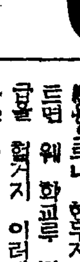
그만 좋아가야겟다。

午后—또 떠이매친다。



渡滿音樂使節 朝鮮樂壇도來訪

滿洲國의 招聘을바더 滿洲國音樂界視察次로 渡滿中인 東京音樂新聞社長 松村道觀氏 作曲家 深井史郎氏는 新京音樂院 網代榮三氏와 同道하야 十七日入京하엿는데 李王職雅樂部其他 音樂關係方面을 訪問하고 朝鮮音樂과 音樂界의 事情을 살피리라한다 (寫眞은 本社를 訪問한 三氏 左로부터 深井、松村、網代諸氏)



孫子講義

李 昇 圭

用閒篇 (二)

故로 用閒이 有五하니 有因閒하며 有內閒하며 有反閒하며 有死閒하며 有生閒하니

(註) 此는 五閒의 名이라

(通解) 故로 閒을 用하미 다섯가지가잇스니 因閒이 잇스며 內閒이 잇스며 反閒이 잇스며 死閒이 잇스며 生閒이 잇스니

五閒이 俱起호대 莫知其道는 是爲神紀니 人君之寶也니라

(註) 神紀는 [illegible] 五閒을 同時에 任用하되 敵이 나의 쓰는 道를 알지못하는 것은 이것이 神妙한 理致니 人君의 寶니라

(通解) 五閒이 한가지 이러나되 그道를 알지못함은 이 神理가 되니 人君의 寶니라

因閒者는 因其鄕人而用之니라

(註) 杜佑—曰 敵의 鄕人을 因하여 敵의 表裏와 虛實을 아는故로 厚利로 그마음을 사서 하여금 嚮導케함이라

(通解) 因閒이란者는 그鄕人을 因하여 쓰는니라

內閒者는 因其官人而用之니라

(註) 杜佑—曰 그在官하여 失職한者나 또는 刑戮의 子孫이나 또는 罰을 바든者이나 이잇는것을 因하여 기피매처 쓰는니라

(通解) 內閒이란者는 그官人을 因하여 쓰는니라

反閒者는 因其敵閒而用之니라

(註) 敵이 閒諜이 잇서 와서 나를 엿보거든 내가 반드시 먼저 알려서 或 厚賂로 誘하여서 도리여 나의 쓸이되게 하기도하고 或 거짓 깨닷지못한체하여 僞情으로써 보이고 노아보내서 敵人의 閒諜이 도리여 나의 쓸이 되는니라

(通解) 反閒이란者는 그敵의 閒을 因하여 쓰는니라

死閒者는 爲誑事於外하여 令吾閒知之而傳於敵이니라

(註) 杜佑—曰 詐誑의 일을 밧게 거짓하여 나의 閒諜으로 하여금 알게하여 敵에게 傳하게 하나니 나의 閒諜이 敵中에 至하여 반드시 詐謀로써 잡힌배되여 敵의게 言하기를 나의 行한바가 그러치아니하다하면 敵이 조차 防備하여 守禦를 解하게하고 降服하게 하여 [illegible] 漢王이 酈生으로 하여금 齊王을 달래여 [illegible] 齊王이 怒하여 酈生을 烹하엿나니라

(通解) 死閒이란者는 外事를 거짓하여 나의 閒諜으로 하여금 알게하여 敵에게 傳하게하는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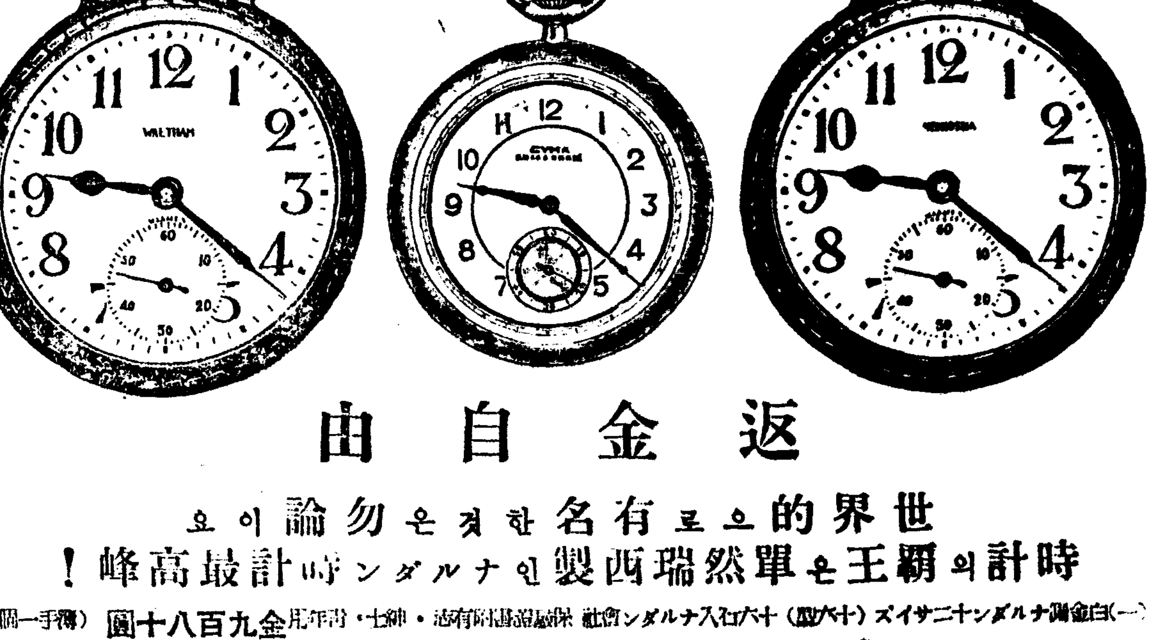
生閒者는 反報也니라

(註) 擇하여 智明한者로 하여금 가서 敵의 情을 엿보아서 도라와 報하게함이라

(通解) 生閒이란者는 도라와 報하게함이니라

時計를사자! 時間이잘맛고갑이헐하고 代々孫々이가질수잇는時計는成工社에注文하자!

交 換 自 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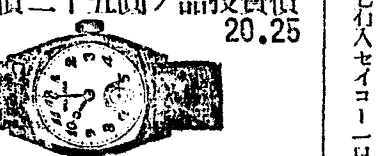
返 金 自 由

世界的으로有名한것은 勿論이요
時計의覇王은單然瑞西製인ナルダン時計最高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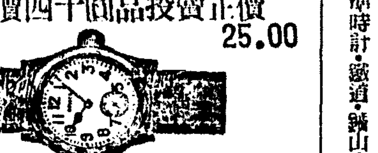
(一)白金側ナルダン十二サイズ(十六型)十六石入ナルダン社會保證附有志・紳士・青年用 金九百八十圓 (獨手一個限)
(二)白金側モバード十二サイズ(十六型)十五石入モバード會社製品モダン型・有志・紳士・青年用 金七百五十圓 (獨手一個限)
(三)白金側オリンパス十二サイズ(十六型)十八石入オリンパス會社製モダン型・有志・紳士・青年用 金七百五十圓 (獨手一個限)
(四)白金側エレツクス十二サイズ(十六型)十八石入オリンパス會社製モダン型・有志・紳士・青年用 金五百五拾圓 (獨手一個限)

米國製ウオルサーム十六サイズ19型鐵道時計側中クローム側ロレット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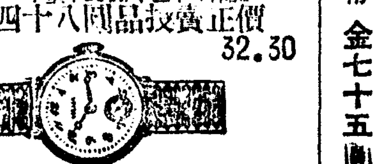
(五) 七石入 鐵道・鑛山・學生・先生・汽船用・標準時計キカイ茶鐵二十一台 金八十圓也 三個限
(六) 七石入 鐵道・鑛山・學生・先生・汽船用・標準時計キカイ茶鐵二十七石 金百十圓也 一個限
(七) 九石入 鐵道・鑛山・學生・先生・汽船用・標準時計キカイ茶鐵二十八台 金百卅圓也 一個限
(八) 九石入 鐵道・鑛山・學生・先生・汽船用・標準時計キカイ茶鐵二十九台 金百五十圓也 一個限
(九) 十七石 鐵道・鑛山・醫師・先生・汽船用・標準時計キカイ茶鐵十四台 金百五十圓也 一個限
(十) 十七石 鐵道・鑛山・醫師・先生・汽船用・標準時計キカイ茶鐵二十二台 金百八十圓也 一個限
(十一) 十七石 鐵道・鑛山・醫師・先生・汽船用・標準時計キカイ茶鐵二十三台 金百九十圓也 一個限
(十二) 十七石 鐵道・鑛山・醫師・先生・汽船用・標準時計キカイ茶鐵二十六台 金二百二十圓 一個限
(十三) 二十一石 鐵道・鑛山・醫師・先生・汽船用・標準時計キカイ茶鐵二十八台 金三百五十圓 一個限
(十四) 二十三石 鐵道・鑛山・軍隊・先生・汽船用・標準時計キカイ茶鐵二十九台 金三百九十圓 一個限
(十五) スイス製十九型二十五石入ヒユウレン自卷 標準時計・鐵道・鑛山・軍隊・汽船用 金百九十圓也 一個限
(十六) スイス製十九型十五石入ロレツクス一日卷 標準時計・鐵道・鑛山・汽船用 金百三十圓 三個限
(十七) スイス製十九型十七石入ロレツクス一日卷 標準時計・鐵道・鑛山・汽船用 金百六十圓 二個限
(十八) スイス製十九型十五石入モリス一日卷 標準時計・鐵道・鑛山・汽船用 金百十圓 一個限
(十九) スイス製十九型七石入シーマ一日卷 標準時計・鐵道・鑛山・汽船用 金百圓也 一個限
(二十) セイコーシヤ製七石入セイコー一日卷 標準時計・鐵道・鑛山・軍隊用 金七十五圓 五個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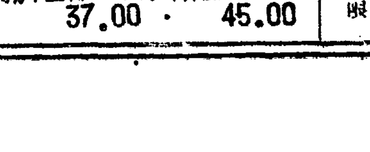
(ノコ)五十個限クローム側腕卷
丸型 萬人向 七石入 アンクル 十年保證
弊所定價二十五圓ノ品投賣價
¥17.50 20.25



(ノリ)三十個限クローム側腕卷
丸型 男女兼用 七石入 三十年保證付
弊所定價四十圓品投賣正價
¥21.75 25.00



(ノヒ)二十個限クローム側腕卷
變型 九・十型 十五石入 三十年保證
弊所定價四十八圓品投賣正價
¥27.50 32.30



(ノル) 十個限クローム側腕卷
九八型 男女兼用 十五石 四十年保證
¥28.50 37.00 · 45.00

SK
新品・中古品・
各國・時計卸・
高級・萬年筆・
製造都賣商・

東京市杉並區天沼三丁目
セイコウシヤ營業所
振替貯金口座 東京(一五七九四一 一五一九四〇)番

보라! 時計註文은반드시 信用이잇고갑시헐하고 時計를함부로 사지마실것은다름이안이요 時計는時間이마저야時計요 現在各處에서 時計를通信으로販賣하는商人이 不少한것은朝鮮日報 百萬愛讀者諸氏께서는 잘아시리라밋는바입니다 弊所는第一重要視하는바 첫재로 正確한時計를 손님의게廉價로 都散賣하는것이弊所의主義며 一時的이안이고 永久한諸氏의時計病院으로 第一의成工社로月桂冠을어드렷니다。

時計를註文하는方法! 어떠한物件을莫論하고 갑시너무헐한것을取하면 臨時的이고 永久히가질수가업답니다、時計도 亦是갑시헐한것을取하면 于先時間도잘안맛고오래가질수도업습니다 諸氏께서 時計를사실때에는 懷中又는손목時計大小型을指定하야 우리成工社를絕對로 信任코下命해주시면 時間이正確한時計를擇送하오리다 可及的時計代價는 얼마정도라는것을알니여주소서 只今時計時勢는날마다變動이甚하오니 그때그때 從時勢를準行하오니 絕對로安心하고註文을만히주시기바랍니다

諸氏께서잘아시고 信用하는時計는 懷中으로 有名한 월삼이안입니까? 一部分을新聞에揭載發表한價格과 時計機械番號를 參考해주세요新聞에發表한以外에도 時計가만습니다 普通가지는월삼十六型은四十圓으로부터 七八百圓까지잇사오니價格을 指定해下命해주소서 追而時計를註文하실때에는 第一最下로 몸時計와손목時計를 一個에二十圓以上品으로 註文해주시오

以下는只今在庫品이一占도업습니다

送金方法! 送金은小爲替又는第一安全한振替貯金東京一五七九四一番으로拂込하소서

注意! 時計를註文하실때에는 註文額三分之一을必히 約束金으로보내주시오約束金이업는註文은 斷然謝絕함 그리고 滿洲國註文은 全部先金으로함

△同業者注文에限하야는 特別히厚代하며 開店하는諸氏의게는 特別히 便利을圖謀함

두번살수업다! 高級萬年筆一千本限六月二十五日까지頒布!

A號 五分軸 正金ブルペン代用 本イリジーム付 絕對保證付 投賣正價 金四圓拾五錢也
B號 四分五厘軸 正金ペン代用 本イリジーム付 絕對保證付 投賣正價 金三圓五拾錢也
C號 四分軸 正金ペン代用 本イリジーム付 絕對保證付 投賣正價 金三圓〇錢也

但 滿洲國註文은 代引一切謝絕함! 前金註文만取扱함 (同業者도割引無함!)

成工社營業所
S.K 東京市杉並區天沼三丁目 振替東京一五一九四〇番

보라! 成工社萬年筆은 恒常使用할사록 インキ가잘나오며正確代用펜이나 석지안코色이 變치안이 하는保證함!

註文方法! 一名限二本以上은謝絕함 但圓錢註文은 三打까지 以上註文은 사절함!

約束金으로 註文額의三割以上前納하면는 送料弊所負擔하되 約束金이업는註文은 註文全部

送金方法! 送金은小爲替又는 振替東京一五一九四〇番으로 送料四十七錢式을必히添付

未經驗勞働者 初給賃金基準

工場·鑛山

第二回朝鮮中央賃金委員會는 十八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委員長 大野政務總監 臨席下에 開催하고 昨年八月一日朝鮮에實施된 賃金統制令第五條第一項의 規定에依하여 道知事가 工場及鑛山未經驗勞働者의 初給賃金을 決定하는 基準을 左記와같이 決定하엿는데 適用範圍는 機械、船舶車輛 [illegible] 朝鮮鑛業令의 適用을받는 鑛山으로서 該當人員은 約[illegible]名 [illegible]

賃金決定基準

一、工場에잇서서는 滿十二歲以上滿二十歲未滿、鑛山에잇서서는 坑外夫는 滿十二歲以上滿二十 [illegible]

[illegible]

工場初給賃金基準額(朝鮮人男子)

[illegible]

鑛山初給賃金基準額(朝鮮人男子)

[illegible]

佛降服과 財界의 觀測

短期戰? 長期戰?

事變處理의 一層急速化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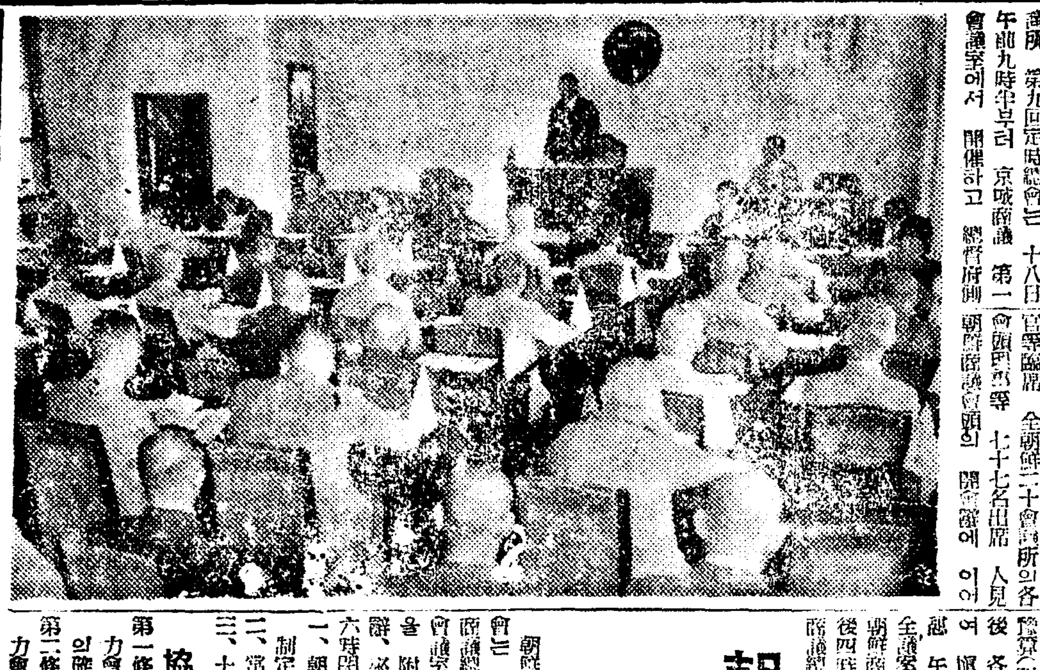
國內經濟體制의 整備가 必要

【東京電話同盟】佛蘭西에 對한 [illegible] 降服으로 英國의 抗戰態度가 [illegible] 何에 關心이 깊다 [illegible] 中心으로 長期戰이냐 短期戰이냐 하는 [illegible]

商工界重大課題 嚴正檢討批判

物資·物價問題爲始諸議案審議可決

九回朝鮮商議總會開催



戰時下 朝鮮商工界의 重大問題 [illegible] 十八日 [illegible] 第九回定時總會는 [illegible] 午前九時半부터 京城商議 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고 [illegible]

議案內容

▲第一號議案(仁川商工會議所提出)

朝鮮中央物價委員會에 全朝鮮各商工會議所를 參加케하도록 要望할 [illegible]

朝鮮經濟統制 協力連絡會

十八日 結成式擧行

朝鮮經濟統制協力連絡會 創立總會는 十八日午後四時부터 朝鮮商議總會에이어서 京城商議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附議決定하엿는데 [illegible]

一、朝鮮經濟統制協力連絡會規約制定의 件

二、常任委員選擧에 關한 件

三、十五年度豫算에 關한 件

協力連絡會規約

第一條 本會는 朝鮮의 經濟統制協力會間의 連絡調整其他經濟統制의 確保를圖하므로써目的으로함

第二條 本會는 朝鮮의 經濟統制協力會로써 組織함

[illegible]

第五條 以下略

木炭配給統制

八月까지 實施할 豫定

農林局에서는 冬期에 잇서서 木炭의 供給에 萬全을期하고 [illegible]

增產策急行

三千五百萬貫確保

[illegible]

淸酒配給統制

懇談會開催

[illegible]

藥品統制

[illegible]

道知事價格指定

權限十品目追加

[illegible]

鑛業振興會社制令

近日公布할 豫定!

[illegible]

燐寸配給統制

三菱獨占下에 잇는

◇…殖產局에서 硏究中

朝鮮內燐寸의 配給은 [illegible]

殖產契指導要綱

三一四萬部落에 設置

[illegible]

今日財界 十八日

[illegible]

株式 買氣漸昂 上進

[illegible]

今日의 市勢 十八日

財界消息

[illegible]

前場堅調

後場上進

佛降伏後注視

紐育市場混亂

諸株一齊崩落

【紐育十七日發同盟】[illegible]

現物氣配不明

[illegible]

株

佛蘭西는 드디어 獨軍門에 降伏 [illegible]

東京國債

[illegible]

果物

[illegible]

菜蔬

[illegible]

海外經濟 十七日

[illegible]

銀行券 十七日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株式

[illegible]

證券 延米 京城府 黃金町 鄭運得取引店 電話②2601番

綿糸 / 棉花 / 綿布 / 生糸 / 鰯油粕·麥粉

[illegible]

三國志 (219)

韓龍雲 譯

熊超 畵

荊陽의 飜覆 (一)

송충이 조조를사례하고 양양으로 도라오다 [illegible]

[illegible]